

WEEKLY KISS

WEEK 1 - 3

1일 1시간 1등급 습관. '평가원+EBS+교육청+사관학교+N제'를 한번에!

최고의 평가원 기출문제 로직 해설지 (풀커리 시 최근 6개년 주요 문항 모두 학습)

최고의 사관학교 기출문제 로직 해설지(풀커리 시 최근 6개년 주요 문항 모두 학습)

2024학년도 EBS 영어 지문 선별, 분석 그리고 변형 (수능 및 내신 대비)

EBS '간접연계' 반영 문항 (N제 역할)

매일매일 어법 1문제

매주 교육청 풀 모의고사 및 로직 해설지

현 절평영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콘텐츠, 주간 KISS와 함께 1등급 쟁취

SHEAN.T

고1 당시 영어 모의고사 5등급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4년 장학, 국내파 통역장교, 4성장군 통역

최초 수능영어 주간지 - 주간 KISS 저자

오르비 베스트셀러 -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 저자

인강 | 대성마이맥

현강 | 대치 세정, 대치 명인, 대치 오르비, 대치 미래탐구

검토 Mi Yeon, Hyeong, Jae Hwi, Tae eun, Tae yoon, Yoon Ho, Yeo jin

디자인 & 편집 Seong Gyun, Chae Hyeon, Jeong Eun

Hi Guys!

Q1. 주간 KISS란 무엇인가요?

주간 KISS는 Keep It Slow but Steady Wins the Race, 즉, 절평영어 시대에 '최소한의 꾸준한' 공부로 수능날 안정적 1등급을 쟁취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1일 1시간 1등급 습관을 추구합니다. 국어 수학과 달리, 절평인 현 수능영어는 공부량,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원 기출(적어도 5개년)'을 마스터하고, 여기에 적당량의 추가 문항들을 곁들여 1등급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간 KISS는 가장 중요한 공부 material인 '평가원 기출'의 완벽한 학습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하고, 현 EBS 연계 방식(50%, 간접연계)을 반영하여 EBS 교재의 '수능형 중요 지문' 변형문제와 이에 대한 간접연계 문제(사실상 비연계)를 N제로 학습 할 수 있게 기획한 주간지입니다. 평가원 '외' 영어 N제를 풀어야 한다면(평가원 기출 마스터가 먼저!), 올해 수능에 유사한 소재가 나올 수 있고 내신 대비도 할 수 있는 좋은 EBS 지문의 변형문제와, 이 소재를 반영한 간접연계 문항을 N제로 쓰는 게 좋다는 게 선티 생각입니다. 여기에 '매주' 교육청 모의고사가 실전 점검용으로 들어가고, 평가원과 유사한 결을 가진 사관학교 주요 문항들도 6개년 수록되어 있으니, 주간 KISS만 제대로 따라온다면, '양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풀커리는 총 21주 구성, 7세트(1세트 당 문제편 1권, 해설편 3권), 2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권의 해설편에 있는 모든 지문의 단어, 해석, 논리를 부단히 반복하며 학습하시면, 양이 부족해 1등급이 안 나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Q2. 평가원 기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닌 정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수능영어 1등급을 위해 충분한 어휘력, 그리고 해석력이 갖춰져야 함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지문의 문제를 풀고, 그 평가원 지문의 어휘, 해석, 논리를 모두 얻어가셔야 합니다. EBS가 수능영어에 직접적인 의미가 없어진 만큼, 최소 5개년 이상의 평가원 지문들로 어휘, 해석, 논리를 총체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대비해온 주간 KISS는, 최고의 평가원 기출 학습지를 제공합니다. 평가원 6개년의 거의 모든 주요 문항에 대해 선티의 상세한 KISS Logic 해설을 제공하고, 스스로 로직과 어휘, 어려웠던 구문을 학습할 수 있는 자가 학습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평가원의 논리는 다른 사설의 그것과 분명 '결'이 다릅니다. 이는 제 N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간 KISS는, KISS Logic을 바탕으로, 이 평가원 논리에 대한 가장 상세한 해설지를 제공합니다.

Q3. EBS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이제 EBS 영어는 '내신'에는 중요하고 '수능'에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EBS 영어로 수업을 나갈 테니 내신에는 중요하고, 수능에는 EBS 중요 지문의 '소재'가 비슷한 지문이 몇 개 보이는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외' 문제를 풀 필요를 느낀다면, 수능에 나올 지문과 아무런 관련 없는 문제보다는, 소재라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문항들을 푸는 게 좋다는 것이 선티 생각입니다. 평가원 영어 출제 지침에는 분명 '배경지식'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 국어와 영어에서 어떤 소재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시험장에서의 이해도에 분명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내신과 수능을 모두 대비하는 고3, 수능만 대비하는 N수생 친구들 모두에게 수능영어 관점에서 중요한 논리/소재를 지닌 EBS 지문의 선별 변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원 기출 다음의 우선순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4. 사관학교, 교육청 모의고사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두 시험지 모두 평가원 제외 '공신력 있고' '검증된' 시험이라는 점에서 선티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사실 모의고사보다 더 높게 치는 시험지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매주 풀모의고사로 실었으니 한 주 학습이 끝난 후 실전 모의고사를 치는 것처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능날 듣기로 인해 등급이 바뀌는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웬만하면 각 교육청 사이트에서 듣기까지 꼭 다운받아 듣기와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관학교 시험 출제에는 평가원 출제진과 사관학교 교수진이 함께 들어갑니다. 평가원 시험지의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문법 등을 제외한 주요 유형의 경우 좋은 평가원 문항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고품질 고난도 N제 느낌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답이 나오는 논리적 근거 등을 평가원과 같은 경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 시험지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교육청'을 먼저 실전처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관학교 문항의 경우 2등급 이상 학생 中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항들이 많이 익숙한 친구들이 추가 고난도 N제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Q5. 기타 어떤 문항들이 수록되어 있나요?

EBS가 포함되는 주에는 1일 1 EBS 지문 원칙으로, 해당 EBS 지문의 킬러 유형 변형과 해당 지문의 간접연계 문항(사실상 비연계)이 함께 구성됩니다. EBS 직접변형과 간접변형 모두, 선티 관점에서 평가원스러운 지문으로서 N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일 어법 1문제가 수록됩니다. 키그램 학습 후 매일 어법 1문제씩 양이 쌓이면, 수능날 어법 문항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Q6. 하루(Day)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기본 '5~6문항' 세팅입니다. 보통 5~6문항을 풀고 어휘/해석/논리를 제대로 분석하는 데 1등급은 1시간 이내, 2등급은 1시간 ~ 1시간 반, 3등급 이하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간 KISS는 평균 7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보통 하루에 1시간 반을 넘기지 않는 학습 문항 수가 5~6문항입니다(2시간 걸린다고 너무 자책 마시길,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니!). EBS가 포함되는 대부분 주치의 경우 보통 평가원 기출 3문제, EBS 킬러 변형 1문제, 간접연계 문항 1문제, 어법 1문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시즌1의 첫 3주는 평가원, 시즌2의 첫 3주는 사관학교, 그 후 3주는 수능완성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평가원(or 사관 or EBS) 5문항과 어법 1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7. 독학할 수 있는건가요?

네, 주간 KISS는 시중 영어 주간지로 최초 출시할 때부터 독학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독학할 수 있도록 모든 해석, 해설에 대한 코멘트를 상세히 달았습니다. '특히' 평가원 해설은, 지난 수년 간 선티가 '와신상담'하면서 국내 최고의 평가원 해설지를 만들기 위해(목표는 항상 높게!)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지문을, KISS Logic의 사고과정에 따라 상세하게 코멘트를 달았고, 모든 지문에 AB, PS 그리고 반응하기 위한 시그널(형광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간 KISS는 독학 영어 학습지이기 때문에 상세한 해설 페이지에 더하여 다시 한 번 로직과 어휘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학습 페이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Q8. 기출문제집과 EBS 연계 교재 사야 할까요?

기출문제집은 주요 유형 외 문항(목적, 심경, 도표, 광고, 3문제 장문..)도 풀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NO', EBS는 선택이라는 답을 드립니다. 주간 KISS에는 최근 6개년, 18회의 평가원 기출의 핵심 문항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1등급 쟁취에 충분하디 충분하고(6개년부터 우선 제대로 합시다. 이거 제대로 하는데도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해요), 혹 KISS Logic 까지 하신다면 거의 10개년치 평가원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 유형 외 문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기출문제집은 추가적으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EBS의 경우, 수특영어, 수특영독, 수능완성에서 중요 지문 각 36개가 수록됩니다. 이 지문에 대한 변형, 분석, 간접연계 문항이 모두 있는 것이죠. 따라서 N수생의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의 다른 문항들도 풀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EBS 연계 교재도 사실 필요가 없고, 고3인데 내신을 주력으로 준비해야 하는 친구의 경우만 EBS 연계 교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9. 몇 등급 이상 추천하시나요?

아무래도 지문 자체가 고3 평가원, 그리고 EBS 지문의 주요 유형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고3 지문들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력, 해석력'은 있어야 합니다. 3, 4등급이라면 쉽지 않지만 부단히 어휘/해석력을 병행해서 기르면서 진행 가능하고, 그 이하라면 먼저 수능단어와 구문 학습을 하시고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Q10. 내신 대비도 되나요?

‘완벽히’는 어렵고, ‘주요 지문’에 한해서 됩니다. 주간 KISS에 수록될 EBS 변형들은 여전히 평가원의 관점에서 ‘어렵고 좋은’ 지문들일 것이고, 이 지문들은 내신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EBS 연계교재를 내신 대비 주력 교재로 하시되, 주간 KISS의 EBS 지문, 문항들은 부가적인 킬러 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11. 주간 KISS 커리만 타면 1등급이 가능한가요?

소위 ‘가능’ 질문인데,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대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주간 KISS 풀커리를 타면, ‘6개년 거의 모든 평가원 문항’, ‘올해 연계교재 3권 핵심 변형 문항’, ‘21회의 교육청 풀모의고사’, ‘추가 간접연계 문항들과 사관학교 6개년 주요 문항’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항들을 풀면 ‘문제의 양’은 충분히 넘치면 넘치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6개년 모든 지문의 ‘어휘, 해석’을 내가 챙기며 꾸준히 달렸다 생각해보세요. 영어 1등급을 위한 어휘력, 해석력을 키우는 데 부족할 수 없습니다. 주간 KISS에 수록된 모든 지문들의 모든 단어, 해석, 논리를 다 씹어드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록된 많은 문항들을 풀며 추가 어휘도 암기하며 문풀 논리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현재 4등급이어도 정말 이렇게 제대로 복습/회독하며 따라오시면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Contents

매주 6일치 구성
매주 교육청 풀모의고사 수록(7일차 학습 권장)
EBS는 하루 1지문 6일 구성으로 각 연계교재 36지문 (6x6) 선별

■ FULL 시즌 ■

21주

◇ 시즌 1 ◇

15주

Week 1 - 3 하루 구성 <small>* 평균 문항 수로, 각 day에 따라 소폭 상이.</small>	Week 4 - 9 하루 구성 <small>* 평균 문항 수로, 각 day에 따라 소폭 상이.</small>	Week 10 - 15 하루 구성 <small>* 평균 문항 수로, 각 day에 따라 소폭 상이.</small>
2월 중순 - 3월 초	3월 중순 - 4월 말	4월 말 - 6월 중순
- 18, 19학년도 평가원 5문제 - 어법 1문제	- 평가원 3문제 - 수특영어 핵심 킬러 변형 1문제 - 간접연계 (사실상 비연계) 1문제 - 어법 1문제	- 평가원 3문제 - 수특영독 핵심 킬러 변형 1문제 - 간접연계 (사실상 비연계) 1문제 - 어법 1문제

◇ 시즌 2 ◇

6주

Week 16 - 18 하루 구성 <small>* 평균 문항 수로, 각 day에 따라 소폭 상이.</small>	Week 19 - 21 하루 구성 <small>* 평균 문항 수로, 각 day에 따라 소폭 상이.</small>
7월 중순 - 8월 초	8월 초 - 8월 중순
- 사관학교 기출 5문제 - 어법 1문제	- 수능완성 핵심 킬러 변형 2문제 - 간접연계 (사실상 비연계 N제) 2문제 - 어법 1문제

Study Guide

◇ KISS Guide Book을 꼭 학습한 후 진행 ◇

Attitude about 평가원 기출

어휘, 해석, 문풀 논리를 모두 챙긴다. 내가 하나의 지문을 스스로 90% 이상 직독직해 할 수 있게 만든다.

Attitude about 기타문항

문제 양치기. 어휘 및 문풀 논리를 챙긴다. (당연히 평가원 외 지문도 스스로 90% 이상 직독직해할 수 있게 다 만드는 것이 best..)

- 1 각 Day에 있는 문제들을 푼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나 이해가 안 가는 지문이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르는 어휘나 해석을 체크한다.
- 2 선티 해설을 본다(대성 강의가 있다면 강의도). Shean.T's comment를 통해 지문의 전반적 핵심 및 문제 풀이를 이해하고, 선티 해설을 통해 지문이 어떠한 논리로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 3 평가원 문제와 사관학교 문항 해설이 가장 자세하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평가원 문제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답이 나오는 '사고과정'은, 하나하나 선티의 사고 흐름을 익히도록 한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나만의 단어장'에 따로 적어 자투리 시간에 외우자. 자가 학습 페이지로 가서, 스스로 다시 로직을 복기하고, 어휘 테스트를 보고,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이 있으면 정리한다.

- 4 EBS 킬러 변형, 간접연계 N제 문항의 경우도 어휘, 해석, 논리 모든 것을 씹어 먹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히 다 얻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부담이 된다면 EBS 변형 및 N제 문항은 어휘와 문풀 논리 위주로 챙기고 넘어가자. 물론 '내신'을 챙기는 친구들은, EBS 지문의 경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해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 5 어법 문제의 경우 키그램을 수강하고 문제를 풀면 가장 좋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어법 '노베'라고 하더라도, 하루 1문제씩 꾸준히 어법 문제를 풀며 주요 어법 사항을 익히는 양치기를 한다면 어법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어법 문제는 정말 부담 없이 해당 어법 사항과 모르는 단어를 얻어가는 것에 집중하자.
- 6 교육청 모의고사는 7일차 학습날에 각 교육청 사이트에서 듣기까지 다운받아 실전처럼 시간 70분을 재고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매주 학습을 통해 자신의 교육청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가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후 채점하고, 역시 단어와 지문 논리를 쫓 챙기면서 피드백하면 좋다. 매주 실전 연습하는 용도이지만, 당연히 지문의 해석까지 꼼꼼히 챙겨가면 가장 좋다. 아직 매주 평가원 및 EBS 학습하기도 벅찬 경우, 모아놨다가 실력을 올리고 나중에 양치기 하는 것도 좋다.

KISS Logic

AB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수능영어 지문의 핵심 구조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겁니다. B는 필자가 강조,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필자가 '복습'을 강조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 그럼 복습이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문에서 '복습이 중요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예습도 중요한데, 복습이 '더' 중요해'라고 비교대조하며 표현해주고, 우리의 목적은 저 AB라는 key message를 찾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버리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경우에는 'A가 문제(P)가 있으니, B가 좋아(해결책이야 S)'라는 것이지만, 한 30% 정도는 S가 없이 대상의 P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조하는 게 P이므로, P가 B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AB/PS는

결국 '단어력' 그리고 해석력이 따라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3등급 이하는 AB/PS에 너무 목매기보다(활용은 하려고 하되) 우직하게 단어 외우고, 외운 단어로 지문을 '한국말로 요리조리' 해석하며 '아 해석이 되는구나' 재미를 좀 더 느껴보세요. 그 과정에서 AB/PS가 느껴지면 좋고, 아니더라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AB/PS라는

어떤 '알파벳'에, 그 '기호'에 함몰되지 마세요. 이는 '본질'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은 아 필자가 자신이 강조하는 것(B)을 드러내기 위해 대립항(A)을 세워서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 속에 문제 의식도 섞여 있겠네, 이런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지, 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CE(원인,결과) ME(수단,목적)라는 기호도 쓰고는 했는데, 역시 수능에서의 도구는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혁신이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 둘만 기억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둘로 나뉘지나?' '이거 문제인가?' 이 생각만 하며 지문을 읽으세요. 이 대상, 개념을 필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 이를 까는 것이고, 이와 대립되는,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대상, 개념이 나오겠네!
Could it be simpler?

KISS Signal

◇ Shean.T's Comment

해당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하면 좋았을 방향, 태도.

◇ 형광펜

AB, PS를 알 수 있기에 반응해야 할 Signal
(순서 및 문삽 문제에서는 반응할 지시어도 포함)

◇ 진한 단어

어휘 정리

◇ 선지

- ① A(not A): A쪽(A의 반대 쪽) 선지.
- ② B(not B): B쪽(B의 반대 쪽) 선지.
- ③ off: 지문의 AB, PS로 grouping되지 않는 헛소리.
- ④ 반: 해당 선지의 '반대 의미'가 정답.
- ⑤ 매: 매력적인 오답(off로 인한).

QnA

◇ 배송 / 결제 / 환불 / 주소변경 / 기타 ◇

오르비 구매자	070-4353-3537 orbi.cs@move.is
대성 구매자	02-5252-110 help@mimacstudy.com

◇ 학습 질문 ◇

오르비 구매자	오르비 KISS 판매 페이지 하단 댓글
대성 구매자	대성 센터 페이지 QnA 게시판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각 Day를 진행하는 데 있어, 누군가는 1시간도 안 걸릴 것이고,
누군가는 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1등급 친구는 내가 막히는 어휘나 해석이 별로 없으니 몇 개만 체크하고
픽업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등급이 낮을수록 단어 해석 하나하나가 퍽퍽 막힌다.

이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공부하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1등급 친구는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이 기간을 보낸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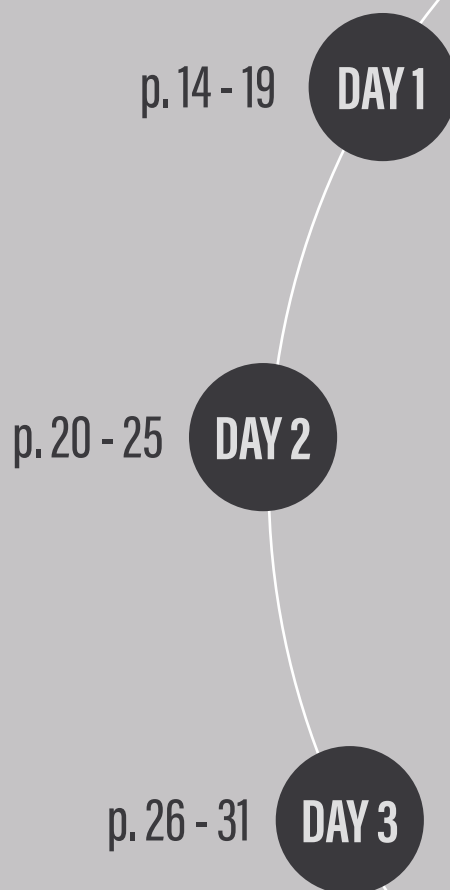
그러니 등급이 낮을 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 시간을 꼭 투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절대 2, 3등급 위로 꺾충 오르지 않을 것이다.

믿고 2, 3개월만 꾸준히 해보자. 영어 지문을 보는 질이 달라질 것이다.

영어는 우직한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르친다.

Table of Contents

WEEK 1



수능영어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믿기에, 이를 가르칩니다.
꼭 1등급이 나와 수시, 정시에서 큰 우위를 가지길 바라며

SHEAN.T



DAY 4 p. 32 - 37

DAY 5 p. 38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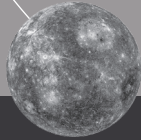
DAY 6 p. 44 - 48

교육청 p. 50 - 60

**KEEP IT SHORT AND SIMPLE.
KEEP IT SLOW BUT STEADY.**

SHEAN.T

WEEKLY
KISS



1

DAY

WEEK 1

KISS
WEEKLY

출처 2018.6.21

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arents are quick to inform friends and relatives as soon as their infant holds her head up, reaches for objects, sits by herself, and walks alone.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tor accomplishments is not at all misplaced, for they are, indeed, milestones of development. With each additional skill, babies gain control over their bodies and the environment in a new way.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 are granted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than are those who spend much of their day on their backs or stomachs. Coordinated reaching opens up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of objects, and when babies can move about, their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manipulation are multiplied. No longer are they restricted to their immediate locale and to objects that others place before them. As new ways of controlling the environment are achieved, motor development provides the infant with a growing sense of competence and mastery, and it contributes in important ways to the infant's perceptual and cognit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 locale: 현장, 장소

- ①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은 유아의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 ②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은 유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③ 부모의 관심은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다.
- ④ 주변 환경의 변화는 유아기 운동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
- ⑤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NOTE

출처 2018.9.21

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sometimes make downward social comparisons — comparing themselves to inferior or worse-off others —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This is self-enhancement at work. But what happens when the only available comparison target we have is superior or better off than we are? Can self-enhancement motives still be served in such situations? Yes, they can, as captured by the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According to this theory, we shift between two processes — reflection and comparison — in a way that lets us maintain favorable self-views. In areas that are *not* especially relevant to our self-definition, we engage in *reflection*, whereby we flatter ourselves by association with others' accomplishments. Suppose you care very little about your own athletic skills, but when your friend scores the winning goal during a critical soccer match, you beam with pride, experience a boost to your self-esteem, and take delight in her victory celebrations as if, by association, it were your victory too.

* flatter: 치켜세우다, 아첨하다

- 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자기 분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성공도 축하해 줄 필요가 있다.
- ③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과의 비교는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사람들은 성취도가 높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⑤ 타인의 성취를 자신과 연결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

NOTE

출처 2018.수능.21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exercise in teamwork I do at a company retreat is to put the group in a circle. At one particular retreat, there were eight people in the circle, and I slowly handed tennis balls to one person to start throwing around the circle. If N equal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ircle, then the maximum number of balls you can have in motion is N minus 1. Why? Because it's almost impossible to throw and catch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e exercise is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s action. People are much more concerned about catching the ball than throwing it. What this demonstrates is that it's equal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that the person you're throwing to catches the ball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If you're less concerned about how you deliver information than with how you receive it, you'll ultimately fail at delegation. You have to be equally skilled at both.

* delegation: 위임

- ①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 의식이 협업의 필수 조건이다.
- ②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 ④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 ⑤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NOTE

출처 2018.6.22

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 to give an offensive position away to those who will use it to attack, criticize, and blame. Since opponents will undoubtedly attack, criticize, and blame, anyway, the advantages of being proactive,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 and "telling on oneself" are too significant to ignore.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is the ability to control the first messages and how a story is first framed. That leaves others having to respond to you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This approach is appropriately termed "stealing thunder." When an organization steals thunder, it breaks the news about its own crisis before the crisis is discovered by the media or other interested parties. In experimental research by Arpan and Roskos-Ewoldsen, stealing thunder in a crisis situation, as opposed to allowing the information to be first disclosed by another party, resulted in substantially higher credibility ratings. As significant, the authors found that "credibility ratings associated with stealing thunder directly predicted perceptions of the crisis as less severe."

* dirty laundry: 치부, 수치스러운 일

- ① necessity of being cooperative in a crisis situation
- ② importance of taking the initiative in managing a crisis
- ③ problem of creating false stories to save an organization
- ④ significance of remaining silent in strengthening credibility
- ⑤ advantage of improving the corporate image through media

NOTE

출처 2018.9.22

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insight is the result of a restructuring of a problem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get stuck.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leading to a different path to a solution heretofore unpredicted. It has been claimed that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is required to attain insight in the problem situation. As a matter of fact,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and let the mind wander freely. Nevertheless,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The new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in finding a solution, thus producing the Aha! Experience.

* heretofore: 지금까지

- ① disadvantages of experience in creative thinking
- ② significance of analytical thinking in gaining insight
- ③ contribution of insight in forming a new perspective
- ④ necessity of separating insight from analytical thinking
- ⑤ difficulty of acquiring in-depth knowledge from experience

NOTE

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Garrett Hardin, who called attention to the damage ① that innocent actions by individuals can inflict on the environment, held that all forms of commonly managed property would necessarily be degraded over time. But we have found, on the contrary, that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many people do organize ② effectively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s. Some institutions, such as in Switzerland, have recorded histories of persistence over centuries. Others, such as in Nepal, have been successful at ③ maintaining forests even in conditions of extreme conflict and armed violence. Developing shared norms and rules that are considered reasonable and fair ④ are crucial for achieving effective management of common property. Local groups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cultures have developed an unbelievable variety of ways ⑤ to do this using their considerable indigenous knowledge.

* inflict: (상처·고통 따위를) 입히다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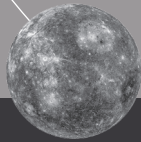
NOTE



**KEEP IT SHORT AND SIMPLE.
KEEP IT SLOW BUT STEADY.**

SHEAN.T

WEEKLY
KISS



2

DAY

WEEK 1

KISS
WEEKLY

출처 2018.수능.22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ensory-specific satiety is defined as a decrease in appetite, or the subjective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with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uneaten food. As a result of sensory-specific satiety,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they tend to overeat. A greater variety of food leads people to eat more than they would otherwise. So, being full and feeling sated are separate matters. The recovery of appetite or the motivation to eat is apparent to anyone who has consumed a large meal and is quite full, an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nergy or nutrients to meet their daily needs, but decides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after seeing the dessert cart. Small changes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foods are sufficient to increase food intake. For example, subjects who were presented with different shapes of pasta showed increased hedonic ratings an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relative to subjects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

* satiety: 포만(감) ** hedonics: 쾌락

*** sated: 충분히 만족한

- ① necessity of consuming a varied diet in daily life
- ② reasons for people's rejection of unfamiliar foods
- ③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 for basic food items
- ④ impact of food variety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consume
- ⑤ importance of maintaining food diversity to prevent overeating

NOTE

출처 2019.6.22

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rm "biological control" has been used, at times, in a broad context to cover a full spectrum of biological organisms and biologically based products. This has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in many instances, with a number of pest problems permanently resolved by importation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natural enemies. These importation successes have been limited largely to certain types of ecosystems and/or pest situations such as introduced pests in perennial ecosystems. On the other hand, this approach has met with limited success for major pests of row crops or other ephemeral systems. In these situations, the problem is often not the lack of effective natural enemies but management practices and a lack of concerted research on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importation attempts in the specific agro-ecosystem setting. Thus, importation programs, to date, are largely a matter of trial and error based on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specialists involved.

* perennial: 다년생의 ** ephemeral: 단명하는

- ① difficulties in identifying major pests in agriculture
- ② benefits of introducing natural enemies into ecosystems
- ③ ways to apply biological control strategies to agriculture
- ④ side effects from pest elimination through biological control
- ⑤ reasons for partial success of importation in biological control

NOTE

출처 2019.9.23

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For example, in most critics championing Douglas Sirk’s films’ social critique, self-reflexivity, and, in particular, distancing effects, there is still a refusal of the ‘vulgar’ enjoyments suspected of soap operas. This refusal again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 from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in order to definitiv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It also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Critiques of mass culture seem always to bring to mind a disrespectful image of the feminine to represent the depths of the corruption of the people. The process of taste-making operated, then,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esthete and the mass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esthetic positions contrary to the perceived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

* vulgar: 저속한, 서민의 ** aesthetic: 미학의, 심미적인

- ① critics’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s and its effects
- ② criticism of cultural hierarchy in soap operas and films
- ③ side effects of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on crowds
- ④ resistance of the masses to cultural separations and its origins
- ⑤ critics’ tendency to identify the refined tastes of the masses

NOTE

출처 2019.수능.23

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We argue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Related issues arise in connection with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id for these nations,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With 20 percent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would combine aid to poorer countries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Perhaps the most cost-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would be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would accelerate the already rapid rate of technical progress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in many areas, as well as encourage the essential switch to conservation agriculture.

* mitigation: 완화

** abatement: 감소 *** subsidy: 보조금

- ① reforming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ies
- ②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 ③ reasons for restoring economic equality in poor countries
- ④ coping with climate change by reforming aid and policies
- ⑤ roles of the OECD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NOTE

출처 2018.6.23

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ve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verload they are up against.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 they may take into account the people at the helm; the current and potential size of its market; net profits; and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tock value, among other pieces of information.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hat it becomes overwhelmed.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sticky notes, and spreadsheets strewn about your desk, and you get a picture of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When information overloads working memory this way, it can make brokers — and the rest of us — scrap all the strategizing and analyses and go for emotional, or gut, decisions.

* at the helm: 실권을 가진 ** strewn: 표면을 뒤덮은

- ① How Information Overload Can Cloud Your Judgment
- ② Multitasking Increases Your Working Memory!
- ③ How to Prevent Information Flood
- ④ Do Flashing Screens Reduce Information Overload?
- ⑤ Emotional Judgment: The Secret of Successful Brokers

NOTE

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Not all writers acknowledge their co-authors in their books. Sarah Walker's *The Promise of an American Life* is a case in point. Nowhere on her title page or copyright page ① is there a suggestion that anyone but Walker wrote her story. But with today's technological networking, ② it became widely known that Anna Vincent helped her with the story. This is ③ what is referred to as ghostwriting, since the co-author is not visible, and it raises some ethical questions. Is this plagiarism, suggesting that the writer is taking credit for work ④ done by someone else? And if we cannot trust the authorship, can we trust the content? It also suggests a false image of the memoirist: that he or she is capable of writing a coherent book ⑤ which, in fact, that may not be the case.

* plagiarism: 표절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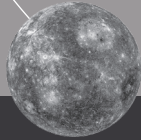
NOTE



**KEEP IT SHORT AND SIMPLE.
KEEP IT SLOW BUT STEADY.**

SHEAN.T

WEEKLY
KISS



3

—
DAY

WEEK 1

KISS
WEEKLY

출처 2018.9.23

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consumers lack adequate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choices, governments frequently step in to require that firms provide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we are all familiar with the mandatory nutritional information placed on food product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t monitors American stock markets forces firms to meet certain reporting requirements before their stock can be listed on exchanges such as the New York Stock Exchange. Such reporting helps ensure that private investors have reliable information on which to base their investment decisions. Often, however, these regulations do not work adequately, as the Enron scandal in 2001 clearly illustrates. The oil trading company Enron had cooked its books to overstate its profitability in its mandated reports. One outcome of Enron's subsequent financial collapse was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design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that companies must provide to the public.

* mandatory: 의무적인 ** subsequent: (결과로서) 일어나는

- ① Financial Advice for Better Market Profitability
- ②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 ③ Ethical Stock Investment for Reliable Businesses
- ④ Disclosing Truth: The Push for Market Credibility
- ⑤ Inflated Figures: The Driving Force for Investment

NOTE

출처 2018.수능.23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dividual authors and photographers have rights to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uring their lifetimes, and their heirs have rights for 70 years after the creator's death, so any publication less than 125 years old has to be checked for its copyright status.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years; the life-plus-70-years standard was set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which increased the 50-year limit established by the 1976 Copyright Act.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 like to defend these increases with tales of starving writers and their impoverished descendants, but in reality the beneficiari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And note that copyright laws serve a dual purpose. In addition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so a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copyright is also supposed to place reasonable time limits on those rights so that outdated works may be incorporated into new creative efforts. Therefore, the extended copyright protection frustrates new creative endeavors such as including poetry and song lyrics on Internet sites.

* heir: 상속인 ** legislation: 법률, 입법

- ① The Untold Origin of Copyright Protection
- ② Creativity Leaps with Longer Copyright Protection!
- ③ More Is Not Enough: No Limits to Copyright Coverage
- ④ Who Smiles at Copyright Protection, Writers or Publishers?
- ⑤ Does Extended Copyright Truly Enhance Protection and Creation?

NOTE

출처 2019.6.23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the individualist form of rhetoric about science, still much used for certain purposes, discoveries are made in laboratories. They are the product of inspired patience, of skilled hands and an inquiring but unbiased mind. Moreover, they speak for themselves, or at least they speak too powerfully and too insistently for prejudiced humans to silence them. It would be wrong to suppose that such beliefs are not sincerely held, yet almost nobody thinks they can provide a basis for action in public contexts. Any scientist who announces a so-called discovery at a press conference without first permitting expert reviewers to examine his or her claims is automatically castigated as a publicity seeker. The norms of scientific communication presuppose that nature does not speak unambiguously, and that knowledge isn't knowledge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disciplinary specialists. A scientific truth has little standing until it becomes a collective product.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is only one stage in its construction.

* rhetoric: 수사(학) ** castigate: 혹평하다

- ① Path to Scientific Truth: Scientific Community's Approval
- ② The Prime Rule of Science: First Means Best
- ③ The Lonely Genius Drives Scientific Discoveries
- ④ Scientific Discoveries Speak for Themselves!
- ⑤ Social Prejudice Presents Obstacles to Scientific Research

NOTE

출처 2019.9.24

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s become one of the key environmental battlegrounds over which the future of nuclear power has been fought. Environmentalists argue that no system of waste disposal can be absolutely safe, either now or in the future.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have tried to find acceptable solutions. But in countries where popular opin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no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has been found. As a result, most spent fuel has been stored in the nuclear power plants where it was produced. This is now causing its own problems as storage ponds designed to store a few years' waste become filled or overflowing. One avenue that has been explored is the reprocessing of spent fuel to remove the active ingredients. Some of the recovered material can be recycled as fuel. The remainder must be stored safely until it has become inactive. But reprocessing has proved expensive and can exacerbate the problem of disposal rather than assisting it. As a result, it too appears publicly unacceptable.

* exacerbate: 악화시키다

- ① Are Nuclear Power Plants Really Dangerous?
- ② How to Improve Our Waste Disposal System
- ③ No Benefits: Nuclear Power Plants Are Deceiving Us
- ④ An Unresolved Dilemma in Dealing with Nuclear Waste
- ⑤ Ignorance Is Not a Blessing: Policies for Nuclear Issues!

NOTE

출처 2019.수능.24

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is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To help societies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s, a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are often employed to assess and communicate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This effort assumes that people can understand the resulting numbers and act on them appropriately. However, recent behavioral research casts doubt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Indeed, 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to lack meaning and to be underestimated in decisions unless they convey affect (feeling). This creates a paradox that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 fail to represent. On the one hand, we respond strongly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 On the other hand, we often fail to prevent mass tragedies or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 catastrophe: 큰 재해

- ① Insensitivity to Mass Tragedy: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 ② Power of Numbers: A Way of Classifying Natural Disasters
- ③ How to Reach Out a Hand to People in Desperate Need
- ④ Preventing Potential Losses Through Technology
- ⑤ Be Careful, Numbers Magnify Feelings!

NOTE

6.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use of *heroine* and *executrix* as referring to a hero or executor who is female (A) illustrates / illustrating what Douglas Hofstadter calls “the slippery slope” of meaning. In his book *Metamagical Themas*, Hofstadter shows diagrammatically (B) what / how the slippery slope works. A triangle represents the idea of, let’s say, a heroic person. At one base angle of this triangle is the word *heroine*, representing the female heroic person. At the other base angle is the word *hero*, representing the male heroic person. And at the apex is the generic word, again *hero*, (C) encompassing / encompassed both. But because the *hero* at the apex and the *hero* at one base angle are identical in name, their separate meanings slip back and forth along one side of the triangle, the slippery slope. The meanings blend and absorb each other. They bond together on the slope. And *heroine*, at the other base angle, remains outside that bond.

(A) (B) (C)

- ① illustrates what encompassing
- ② illustrates how encompassing
- ③ illustrates how encompassed
- ④ illustrating how encompassed
- ⑤ illustrating what encompassing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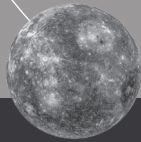
NOTE



**KEEP IT SHORT AND SIMPLE.
KEEP IT SLOW BUT STEADY.**

SHEAN.T

WEEKLY
KISS



4

DAY

WEEK 1

KISS
WEEKLY

출처 2019.6.29

1. 다음 글에서 밑줄 친 None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Here's an interesting thought. If glaciers started re-forming, they have a great deal more water now to draw on — Hudson Bay, the Great Lakes,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lakes of Canada, none of which existed to fuel the last ice sheet — so they would grow very much quicker. And if they did start to advance again, what exactly would we do? Blast them with TNT or maybe nuclear missiles? Well, doubtless we would, but consider this. In 1964, the largest earthquake ever recorded in North America rocked Alaska with 200,000 megatons of concentrated might, the equivalent of 2,000 nuclear bombs. Almost 3,000 miles away in Texas, water sloshed out of swimming pools. A street in Anchorage fell twenty feet. The quake devastated 24,000 square miles of wilderness, much of it glaciated. And what effect did all this might have on Alaska's glaciers? None.

* slosh: 철벽철벽 튀다 ** devastate: 황폐시키다

- ① It would be of no use to try to destroy glaciers.
- ② The melting glaciers would drive the rise of the sea level.
- ③ The Alaskan wilderness would not be harmed by glaciers.
- ④ Re-forming glaciers would not spread over North America.
- ⑤ The causes of glacier re-formation would not include quakes.

NOTE

출처 2019.9.21

2. 밑줄 친 “a link in a chain, a phase in a proces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sychologist Mihaly Csikszentmihalyi suggests that the common idea of a creative individual coming up with great insights, discoveries, works, or inventions in isolation is wrong. Creativity results from a complex interaction between a person and his or her environment or culture, and also depends on timing. For instance, if the great Renaissance artists like Ghiberti or Michelangelo had been born only 50 years before they were, the culture of artistic patronage would not have been in place to fund or shape their great achievements. Consider also individual astronomers: Their discoveries could not have happened unless centuri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telescope and evolving knowledge of the universe had come before them. Csikszentmihalyi's point is that we should devote as much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a domain as we do to the people working within it, as only this can properly explain how advances are made. Individuals are only “a link in a chain, a phase in a process,” he notes.

* patronage: 보호, 후원, 찬조

- ① Individuals' creativity results only from good fortune.
- ② Discoveries can be made only due to existing knowledge.
- ③ One's genius is a key element of a series of breakthroughs.
- ④ Individuals receive no credit for their creative achievements.
- ⑤ Individual creativity emerges only in its necessary conditions.

NOTE

출처 2019.수능.21

3. 밑줄 친 refining ignoranc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the best science can really be seen as refining ignorance. Scientists, especially young ones,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s. Society helps them along in this mad chase. Big discoveries are covered in the press, show up on the university's home page, help get grants, and make the case for promotions. But it's wrong. Great scientists, the pioneers that we admire, are not concerned with results but with the next questions. The highly respected physicist Enrico Fermi told his students that an experiment that successfully proves a hypothesis is a measurement; one that doesn't is a discovery. A discovery, an uncovering — of new ignorance. The Nobel Prize, the pinnacle of scientific accomplishment, is awarded, not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but for a single discovery, a result. Even the Nobel committee realizes in some way that this is not really in the scientific spirit, and their award citations commonly honor the discovery for having “opened a field up,” “transformed a field,” or “taken a field in new and unexpected directions.”

* pinnacle: 정점

- ①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s what is left unknown
- ② offering an ultimate account of what has been discovered
- ③ analyzing existing knowledge with an objective mindset
- ④ inspiring scientists to publicize significant discoveries
- ⑤ informing students of a new field of science

NOTE

출처 2018.6.29

4.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ome coaches erroneously believe that mental skills training (MST) can only help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As a result, they shy away from MST, (A) denying / rationalizing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It is true that mental skill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in terms of physical skills. In fac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Consequently, any small difference in (B) physical /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However, we can anticipate that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tha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In fact,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ay 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 Introducing MST (C) early / later in athletes' careers may lay the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

* homogeneous: 동질적인 ** optimal: 최적의

- | | (A) | (B) | (C) |
|-----------------|-------|----------|-------------|
| ① denying | | physical | later |
| ② denying | | mental | early |
| ③ rationalizing | | physical | early |
| ④ rationalizing | | physical | later |
| ⑤ rationalizing | | mental | early |

NOTE

출처 2018.9.29

5.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who, after all,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Most people’s perception in these matters is not very sharp.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s. They are (A) disappointed / satisfied with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Thus,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tha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And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but for art. They know that (B) artistic / real representation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 depicted. Things that in real life are imperfectly realized, merely hinted at,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appear in a work of art complete, entire, and (C) free / inseparable from irrelevant matters.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

* entangle: 얽히게 하다

- | | (A) | (B) | (C) |
|---|--------------------|----------------|-------------|
| ① | disappointed | artistic | free |
| ② | disappointed | real | free |
| ③ | satisfied | artistic | inseparable |
| ④ | satisfied | real | inseparable |
| ⑤ | satisfied | artistic | free |

NOTE

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People are sometimes resistant to the idea of introducing rituals because they believe ① that ritualistic behavior may detract from spontaneity or creativity —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terpersonal rituals such as a regular date with one’s spouse, or artistic rituals such as painting. However, if we do not ritualize activities — whether working out in the gym, spending time with our family, or reading for pleasure — we often don’t get to them, and rather than ② being spontaneous, we become reactive (to others’ demands on our time and energy). In an overall structured, ritualized life, we certainly don’t need to have each hour of the day ③ accounting for and can thus leave time for spontaneous behavior; more importantly, we can integrate spontaneity into a ritual, as, for example, deciding spontaneously ④ where we go on the ritualized date. The most creative individuals have rituals that they follow. Paradoxically, the routine frees ⑤ them up to be creative and spontaneous.

* spontaneity: 즉흥적임

NOTE

NOTE

